

앞으로의 30년 미래 교육 방향 찾아

대한민국 미래 교육자치 선언식... '함께 실천하는 교육과정' 등 3가지 주제로 논의

교육부, 국가교육회의,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10일 서울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에서 대한민국 미래 교육자치 선언식을 개최 각 기관별 유튜브 채널로 생중계했다고 밝혔다.

이날 선언식은 올해 진행된 대한민국 교육자치 30주년 관련 활동을 총정리하고 향후 30년간의 미래 교육을 위한 교육자치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세 기관은 미래 교육을 준비하는 다짐의 내용이 담긴 선언문을 채택, 교사노동조합연맹,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모임, 전국혁신학교학부모네트워크, 교육희망네트워크가 함께 참여했다.

선언식 참가자들은 공동선언문에서 "지금 우리는 교육의 전환기에 서 있고 자치와 분권으로 미래를 향해 나아



교육부, 국가교육회의,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10일 서울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에서 대한민국 미래 교육자치 선언식을 개최, 각 기관별 유튜브 채널로 생중계했다고 밝혔다.

가야 할 때'라고 하며 학생, 학부모, 교직원, 지역사회가 모두 주체임과 각각의 역할을 언급했다.

또한 '교육주체가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를 통한 국가의 교육 비전 수립과 이를 위한 정책 운영', '학생의 성장을 중심에 둔 자치와 분권으로 학교를 지원하는 행정체계 구축', '학생-학부모-교직원-지역주민 모두가 주인으로서 책임을 다할 수 있는 교육자치 제도 마련'을 실천하겠다고 주장했다.

트크소에서는 '함께 실천하는 교육과정', '함께 참여하는 교육주체', '함께 지원하는 교육체계'의 세 가지 주제로 진정한 교육자치 시대를 열어가기 위한 방안에 대해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다.

3개 기관은 "앞으로도 교육주체와 폭넓게 소통하고 제도와 정책을 마련해 학교 현장에서 미래 교육을 준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했다. /정은성 기자

습도조절 기능성 목재 '주목'

전북대 박희준 교수팀, 서울국제발명전시회서 '동상' 특허 등록과 기술이전 마치고 목재자원 신산업화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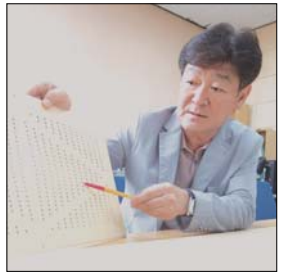
전북대학교 박희준 교수(주거환경학과)가 개발한 '습도조절 기능 이 개선된 기능성 건축자재 제조 기술'이 최근 열린 2021년 서울국제발명전시회에서 동상을 수상했다고 전했다.

올해 40회째를 맞은 서울국제발명전시회는 특허청이 주최하고 한국발명진흥회가 주관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지식재산 통합 전시회로, 지난 1일부터 4일까지 '발명 특허대전'과 '상표·디자인권전' 등과 함께 진행됐다.

전북대 산학협력단에서 보유하고 있는 이 특허기술은 산림청의 '목재자원의 고부가가치 첨단화 기술개발사업'으로 개발된 것으로, 특허등록과 기술이전 등을 마치고 목재자원의 신산업화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 5월 흡·방습 기능이 있는 기능성 건축자재로는 처음으로 국가녹색기술 인증을 받으면서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을 최소화하는 친환경 기술이라는 인정을 받았다.

학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의 현장 심사에서도 이 기



습은 흡습과 방습량이 기준을 훨씬 상회하는 등 안정적이고 우수한 성능과 친환경적 요소까지 결합된 제품이라는 호평을 받았다.

실제로 일반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에서 12시간의 흡습과 방습량 평균이 65g/m² 이상, 그리고 국가녹색기술 기준에서는 85g/m² 이상인데 박 교수의 이 기술은 100g/m² 이상으로 매우 월등하다.

이 기술이 널리 상용화 된다면 4계절이 뚜렷하고 계절별 온도 차가 큰 국내 현실에서 실내 습도조절에 기여해 국민의 건강과 환경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정은성 기자

전주교대, 도서관 개축 국고예산 175억 확보

내년부터 2025년까지 추진

전주교대가 도서관 개축사업 국고예산 175억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 대학 도서관 개축사업은 분리 운영 중인 도서관을 통합 및 적정 규모의 공간을 확보해 사용자 편의를 증진시키고 양질의 시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규모는 연면적 5,500㎡(지하층, 지상 5층)이고, 사업기간은 2022년부터 2025년까지다.

전주교육대학교 도서관의 개축 필요

성은 예전부터 지속돼 왔다.

1981년 준공된 도서관은 면적이 좁아 열람, 장서 등의 소장공간이 협소하고, 도서의 대출과 열람공간이 별도 건물로 분리돼 관리 운영상의 효율성이 매우 낮은 실정이었다.

이에 전주교육대학교는 2021년 4월 신규 확충사업 예산을 요구, 5월 교육부 총사업비 심의에서 신규 확충사업을 확정 받아 기재부와 국회 최종결정을 통해 예산을 확보했다.

이로써 전주교육대학교는 학습과 휴식을 병행하는 양질의 시설서비스를

갖춘 도서관을 갖추게 됐고, 안정적인 자료 보존과 최첨단화 된 맞춤 서비스도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우영 총장은 "이번 도서관 개축 예산확보를 통해 재학생 1200여 명과 지역주민의 안전한 복합문화공간이 마련될 예정이다"면서, "재정지원사업을 통해 지역사회 연계프로그램을 운영 중인 우리 대학은 이번 도서관 개축을 계기로 더욱 더 다양한 프로그램을 활성화해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로써 전주교육대학교는 학습과 휴식을 병행하는 양질의 시설서비스를



남원 수확체험센터

명칭 공모... 28일까지

전북교육청이 수학 문화 대중화를 위해 남원에 건립하고 있는 수확체험센터의 명칭 공모에 나섰다.

9일 남원교육지원청에 따르면 (가칭)남원수확체험센터가 2022년 완공을 목표로 남원시 어룡동 400번지에 설립 중이다. 주요 시설로는 1층에 수학·과학·정보·진로 등 다양한 전시체험 공간과 수확터, 2층은 수확체험교실, 미래형 수학교실, 3층은 수확체험 이동 교실, 과학축제, 진로체험이 가능한 다목적 강당 등이 들어선다.

또 이외에는 수학과 더불어 아이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대형 수확체험 교구 등이 조성된다.

이번 명칭 공모는 수확체험센터 설립 가치를 잘 드러내며, 친근하게 부를 수 있는 이름을 찾기 위한 것으로, 도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오는 28일까지로 제안 사유를 담은 공모제안서를 작성해 남원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로 방문 또는 우편, 이메일 (ej800@jbedu.kr) 접수하면 된다.

이후 운영지원위원회 사전 심의와 명칭 선호도 조사를 거쳐 내년 1월 12일 최종 결정된다. /정은성 기자

전북대 전자공학부 학술동아리, 우수상 수상

'도전·한국 공모'서,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 방안 아이디어 '호평'

전북대학교 전자공학부 학술동아리 학생들이 최근 열린 '2021 도전·한국 공모전'에서 우수 아이디어로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대한민국의 미래 사회 현안 해결을 위해 지난해부터 행정안전부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전으로, 올해는 총 상금 5억 원 규모로 15개의 사회 문제 주제에 대한 아이디어 공모를 진행했다.

공모전에서 전자공학부 학술동아리 'Display Your Dream(DYD)'의 심승현, 정지웅, 남은서, 배운재 학생팀은 'QR코드, 앱을 이용한 포인트 적립 및 투명 페트병 재활용'으로 제작된 분리수거 자루를 통한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 방안' 기술을 제안했다.

이를 통해 환경 문제가 되고 있는 페트병 분리배출을 보다 손쉽게 유도할 수 있는 아이디어라는 심사위원들의 호평을 받았다.

이후 행정안전부 공모전 우수상 등 동아리 내 3개 팀이 연이어 전국 공모전에서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정은성 기자



심승현 학생은 "문제의 본질적인 원인을 직관적으로 볼 수 있는 안목을 기를 수 있었던 것 같아 매우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전자공학부 DYD는(회장 김석기·지도교수 이지훈) 설립 3년째를 맞은 학술동아리로, 올해 한전KDN 대국민 공모전 최우수상, 한국수자원공사 대국민 물 빅데이터 공모전 K-Water 사장상에 이어, 이번 행정안전부 공모전 우수상 등 동아리 내 3개 팀이 연이어 전국 공모전에서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정은성 기자

전북대 창업지원단 'JB 연합 Glocal 라이브커머스' 성황

전북대학교 창업지원단(단장 권대규)은 유통채널과 마케팅이 필요한 초기창업기업들의 판로 확보 및 제품 홍보를 위해 전북지역 기관들과 공동으로 Glocal 라이브 커머스(랜선마켓)를 개최 큰 호응을 얻었다.

이에 따르면 2021년 신규로 창업한 초기창업기업들의 참신하고 혁신적인 제품들을 소개하고 판매하는 JB 연합 Glocal 라이브커머스는 올해 예비창업패키지에 선정된 기업들의 제품을 온라인 라이브로 판매하는 행사이다.

전북대학교 3개 기업, 전주대학교 3개 기업,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2개



기업, 한국탄소산업진흥원 2개 기업 총 10개 기업이 참여해 전문 쇼호스트의 진행으로 신제품을 소개하고 판매했다.

이번 행사는 생활용품, 식품 등의 온라인 마켓을 통한 구매가 가능한 제품들을 직접 판매하는 하는 방식으로 진행, 방송시간대에 동시접속자 수가 1,000명 이상으로 성료 됐다.

또한 방송시간 이후에는 네이버스토어와 연동돼 지속적인 판매가 가능하도록 해 창업 초기기업에게 큰 도움을 줬다.

행사에 참여한 기업대표들은 개발한 제품의 판로 확보를 고민하던 중 라이브커머스를 경험해 볼수 있는 좋은 기회였으며, 제품 홍보와 판로개척에 큰 도움을 받았다는 만족도 높은 반응을 보였다. /정은성 기자



부안군 BUAN-GUN

생동하는 부안

미래로 세계로



미래100년 먹거리!

수소산업을 이끌어가는 에너지 자립도시 부안